

요거트 제조능력 2배 늘린 생산라인 확보

풀무원은 전북 무주공장 증축 생산 능력 6만6800t으로 확대 239억 투입 3개 신규 라인 증설 트렌드 대응 인프라 구축 완료

요거트 전문 기업 풀무원이 전북 무주 공장 증축으로 중장기 사업 규모를 키울 수 있는 탄탄한 토대를 구축했다.

풀무원은 총 239억원을 투입해 3개의 신규 요거트 생산라인을 증설하고 연간 요거트 생산능력을 2배 이상 확대했다고 6일 밝혔다.

대지면적 11만9936㎡(3만6280평), 연면적 1만3078㎡(3956평) 규모의 풀무원은 무주공장은 지난 2008년 세계 1위 요거트 전문기업 다논의 제품 제조 역량을 집약해 설립됐다. 국내 요거트 공장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원유 전살균 설비, 유산균 투입기(MIF) 등 차별화된 공정과 설비가 갖춰져 있다. 풀무원은 이번 무주공장 증축을 통해 3072㎡(929평)의 연면적을 추가로 확보하고 고속충진설비와 포장설



정희련 풀무원은 대표가 무주 요거트 공장에서 생산된 '액티비아 화이트'를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 무주농공단지에 위치한 풀무원은 요거트 공장 전경

비, 전처리설비 등을 증설하여 요거트 생산 능력을 기존의 2만8000t에서 2.3배가 넘는 6만6800t으로 확대했다.

이번 증축을 통해 풀무원은 증가하고 있는 소비자 수요에 맞는 제품 공급이 가능해졌고, 시장 트렌드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게 된 것이다. 또 무주군을 비롯 전북 동부권 지역의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요거트 시장은 경쟁이 치열하

고 완속기에 접어들어 성장이 더딘 편이지만, 풀무원은 100년 발효 역사를 지난 프랑스 다논의 세계 1위 요거트 기술을 토대로 매년 혁신적인 신제품을 선보이며 지속적인 성장을 해왔다.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 요거트 시장은 연평균성장률은 0.5%에 그친 반면 풀무원은 같은 기간 연평균 10.9% 높은 매출성장률을 보인다.

정희련 풀무원은 대표는 "풀무원

다논 무주공장은 그동안 '액티비아' 등 세계적 수준의 발효유 제품들을 생산해 오면서 풀무원은 국내 최대 규모의 요거트 전문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전진 기지 역할을 해 왔다"며 "이번 3개 라인 증설로 생산 능력이 2배 이상 늘어난 만큼 앞으로 더 새롭고 다양한 맛과 기능을 갖춘 제품들을 선보이며 국내 요거트 시장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효정 기자 princess@metroseoul.co

JW중외제약

짜먹는 어린이용 해열제

JW중외제약이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는 어린이용 해열진통제를 출시했다.

JW중외제약은 짜먹는 어린이용 해열제 '페인엔젤 키즈시럽(사진)'을 선보이고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에 돌입했다고 4일 밝혔다.

'페인엔젤 키즈시럽'의 주성분은 텍시부프로펜으로 이부프로펜 성분에서 활성 성분만 분리해 적은 용량으로도 동등한 해열, 진통, 소염 효과를 나타내며 안전성을 높였다.

이 제품은 생후 6개월 이상의 소아부터 사용 가능하며, 1일 최대 4회까지 4~6시간 간격으로 복용하면 된다.

특히 6ml의 1회용 스틱 파우치 형태로 복용이 편리하고 휴대가 간편하며 개별 포장되어 있어 대용량 병 포장 형태보다 위생적이다. /이세경 기자



이화의료원, 온라인 세미나 성황리 개최

마이크로바이옴 심포지엄

몸 속 100조 개 미생물·유전자 질환 진단·치료서 결정적 역할

이화의료원은 지난 4일 이대목동병원에서 '여성질환과 마이크로바이옴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본 심포지엄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행사 참석 인원을 최소화했다.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수백 명이 동시 접속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마이크로바이옴이란 미생물(microbe)과 생태계(biome)를 합친 말로 몸 속에 100조 개의 미생물과 그 유전자를 뜻한다. 우리 몸에는 수많은 미생물이 존재하는데 이들 장내 미생물이 비만, 당뇨, 아토피 등 질환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질병의 열쇠'인 마이



여성질환과 마이크로바이옴 심포지엄

크로바이옴은 의학적으로 질환 진단, 치료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하은희 이화의료원 연구진흥단장은 "인류는 지구 상에 존재하는 미생물과 함께 진화했고 마이크로바이옴과 질병은 뗄 수 없는 관계"라며 "마이크로바이옴과 질병의 연결 고리를 찾아내는 것이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 학자들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동국생명과학 전국에 스마트 이미징센터 오픈

종로정형외과와 업무협약

동국제약의 자회사 동국생명과학은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종로정형외과'와 소형 CT를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스마트 이미징 센터' 업무 협약을 추가로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동국생명과학은 종로정형외과를 포함한 전국 5곳에, 소형 CT '스마트 엠'의 이미징 센터를 확보하게 됐다. 특히, 센터에서는 '스마트 엠'의 판매는 물론 동국생명과학과 함께 의료 영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다른 병원 관계자들이 방문해 기기 운영 현황을 참관할 수도 있다.

소형 CT '스마트 엠'은 두부(머리), 경추(목뼈), 팔다리, 관절 부위를 비롯해 폐 영상까지 고해상도로 촬영할 수 있으며, 이를 3차원 3D 이미지로 구현 가능한 최첨단 의료 장비이다.



동국생명과학 진단장비사업부 서정호 팀장(왼쪽)이 종로정형외과 이종근 원장과 지난 달 27일 '스마트 이미징 센터'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종로정형외과 이종근 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정확한 자세를 숙지하지 못한 채 무리한 운동을 하다가 부상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제 저희 병원에서도 '스마트 엠' CT를 통한 촬영으로 상세한 진단이 가능해, 환자의 편의성과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리바이스키즈

재활용 섬유로 만든 팬츠

리바이스키즈가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

리바이스키즈는 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친환경 리사이클 원단으로 만든 '리사이클링 데님 팬츠'를 출시한다고 6일 밝혔다.

리사이클링 데님 팬츠는 일상에서 버려지는 페트병을 비롯해 플라스틱에서 추출한 재생 폴리에스터 원사인 '리프리브(REPREVE)' 소재로 제작됐다. 리프리브는 제조 공정 시 석유와 같은 새로운 원자재를 사용하지 않아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고, 물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어 환경 보존에 이로운 것이 특징이다. 또한 흡습, 보온, 냉각, 발수성 기능이 있다.

이번 리사이클링 데님 팬츠는 '로고 스트링 풀온 데님 팬츠'와 '510 스키니 코지 데님' 두 가지로 구성됐다. 로고 스트링 풀온 데님 팬츠는 허리 밴딩으로 활동성이 높은 아이들에게도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한다. 510 스키니 코지 데님은 폭신한 플리스 기모 안감을 사용해 보온성까지 가미되어 일교차가 큰 계절에도 포근하게 입을 수 있다. 제품 사이즈의 경우 로고스트링 풀온 데님 팬츠는 105에서 170까지, 510 스키니 코지 데님은 140에서 170까지로 폭넓게 마련됐다.

남인영 한세드림 리바이스키즈 기획 MD는 "지속 가능한 환경 가치를 추구하는 리바이스키즈의 이번 친환경 제품과 함께 일상생활 속에서 환경보호 실천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효정 기자

현대그린푸드 집콕족 증가에 '그리팅' 매출 급증

'케어식단' 8월 주문량 26%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에서 끼니를 챙기는 '집콕족'이 늘면서, 현대그린푸드의 맞춤형 케어푸드 브랜드 '그리팅' 식단을 정기구독해 이용하는 고객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종합식품기업 현대그린푸드는 정기구독형 서비스 '그리팅 케어식단'의 8월 주문량이 전 달인 7월과 비교해 25.9% 늘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작된 8월16일 전후로 판매량 증가가 두드러졌다. 8월16일부터 31일까지 그리팅 케어식단의 일평균 주문량은 8월1일부터 15일까지와

비교해 35.7% 증가했다.

현대그린푸드 측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재택근무와 원격 수업 등이 늘면서 끼니를 모두 집에서 해결하게 되는 등 소비자들의 식생활 변화가 그리팅 케어식단 정기구독 고객 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그리팅 케어식단이 이색 식재료를 사용해 메뉴를 다양화한 것도 30~40대 주부들의 수요를 끌어당기며 정기구독 고객수 증가에 한 몫을 했다. 실제로 8월 그리팅 케어식단 전체 구매 고객 중 30~40대 여성 비중은 59%로, 론칭 첫 달인 3월(45%)과 비교하면 1.3배 이상 늘어났다.

/조효정 기자

유한양행, 안티푸라민 손흥민 에디션 출시

유한양행의 국민소염진통제 '안티푸라민'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캡틴 손흥민 선수와 다시 한번 손을 맞잡고 함께 된다.

유한양행은 최근 손흥민 선수를 안티푸라민 제품 패키지 모델로 발탁하고, 이를 적용한 안티푸라민 '손흥민 에디션(사진)'을 4일 선보였다.

안티푸라민은 이미 작년 손흥민 선수를 모델로 제품광고캠페인을 펼치며 주목을 모은 바 있다.

유한양행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손흥민 선수의 탁월한 기량과 국가대표로서 항상 보여주는 책임감이, 국민 대표약안티푸라민의 탄생·성장과정과 매우 닮아있다"며 "밝고 긍정적인 마인



드와 도전정신을 가진 손흥민 선수를 제품 패키지 모델로 하여 최근 더 심각해진 코로나 상황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출시된 '안티푸라민 손흥민 에디션'은 안티푸라민 더블과워·쿨·파프·한방카타플라스마, 쿨파워·코인플라스타 등 파스 제품과, 안티푸라민 쿨에어파스 등으로 향후 적용 라인업을 더 확장해갈 계획이다. /이세경 기자